

빛을 향해가는 가을 음악의 향연

화엄음악제 10월 19일... 화엄사 각황전서



화엄음악제 '2013 첫 번째 빛'이 10월 19일 오후 3시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에서 열린다.

화엄사(주지 종상)가 주최하는 화엄음악제 '2013 첫 번째 빛'이 10월 19일 오후 3시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제에는 '소리의 생태학자'로 불리며 세계 각국의 민속음악과 악기를 연주하는 ECM레이블의 주요 아티스트 '스테판 미쿠스'를 비롯 정재일, 카입(Kayip), 최은, 정가악희, 월일이 출연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첫 번째 빛(First Night)'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크리스나무르티(1895~1986)의 '스스로에게 빛이 되어야 한다. 진실은 외부가 아니라 안에서 찾아야 한다. (En-light-ened-This light in Oneself)'는 말에서 인용했다.

월일 총감독은 "우리 모두가 빛이라는 사실을 처음 깨닫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유기적으로 하나임을 알게 되면 남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번 화엄음악제의 음악은 바로 이 빛의 의미인 영원한 자유와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라고 설명한다.

'월일'은 현재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이며 작곡가, 지휘자, 연주자 등 다양한 음악 분야에서 독보적인 작업으로 잘 알려진 멀티 아티스트로 7년 동안 화엄음악제를 이끌어왔다.

특히 올해 새롭게 제작된 화엄사 범종의 소리를 바탕으로 월일은 카입(Kayip)과 정재일과 함께 음악제의 시작과 끝을 제의적으로 열고 닫는 특별한 사운드작업을 시도한다. (02)2272-2152

정혜숙 기자

바람 만나 대나무 일렁이니 삼라만상이 '썰'

사진작가 라규채 뉴욕 '비움'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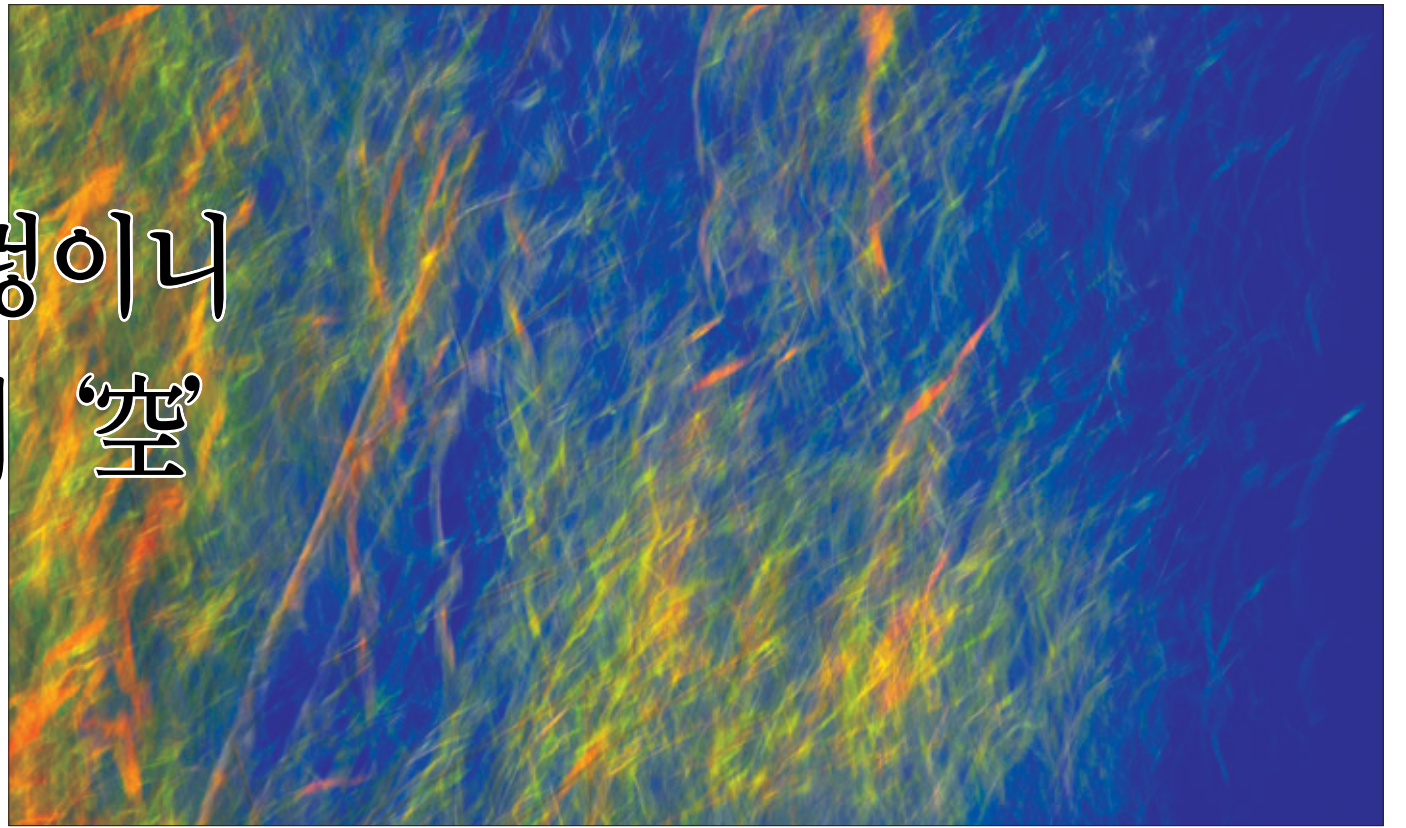
라규채 사진작가

대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대나무의 잎을, 그리고 대를 흔들며 또다른 세계를 펼쳐냈다. 그 순간 대나무는 대나무가 아니고 바람도 바람이 아니었다. 흔들림 미세한 파동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만이 오직 거기에 존재할 뿐이었다.

대나무 사진가 라규채의 작품이 미국 뉴욕을 찾았다. 맨하탄 갤러리 코리아에서 10월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비움'을 주제로 한 'Bamboo 시리즈'로 선(禪)사상의 핵심인 공(空)을 대나무로 표현해냈다.

"선비의 상징인 대나무라는 소재를 통해 동양사상의 핵심인 불교의 연기법(緣起法)에 의한 '공(空, 비움)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우주 속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언제나 진동과 파동에 의해 변화하면서 존재한다는 것이 공사상의 핵심이죠. 이번 전시는 미국인들이 신비롭게 여기는 대나무를 동양 선(禪)사상과 접목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세계를 표현하는 그의 작품에서 대나무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저 바람과 햇빛에 따라 변화하는 대



대나무 사진가 라규채가 뉴욕 맨하탄 갤러리 코리아에서 10월 24일까지 '비움'을 주제로 한 'Bamboo 시리즈'로 전시회를 연다.



작가는 선(禪)사상의 핵심인 공(空)을 대나무로 표현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동과 파동 따라 변하는 대나무
계절 변화에 맞춰 렌즈에 담아
10월 24일까지 갤러리 코리아서

나무는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바람에 따라 그 모양을 달리하며 시시각각 다양한 세계를 표현한다.

특히 이번 전시 작품 중 하나인 코발트 빛깔을 배경으로 하는 대나무는 담양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만이 표현해 낼 수 있는

작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 대나무는 푸르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겨우내 묵은 노란잎이 봄을 맞아 떨어지고 새싹이 나오는 딱 1주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늘색을 배경으로 한 대나무는 파스텔톤을 자아내며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 작품은 새싹과 낙엽 중간 사이의 나뭇잎 색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그 순간을 포착했죠."

그렇다. 그의 대나무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저 바람을 만나 중량과 질감의 존재는 온데간데 없고 공의 세계가 펼쳐질 뿐이다. 작가는 이 모든 과정에 연기법이 담겨 있다고 설명한다. "대나무는 대나무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또다른 세상을 연출해 내죠. 제 느낌과 순간의 진동이 모두가 합쳐져야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를 넘어 제 작업 과정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시키지 않고 1~2분 정도 서서 그 순간의 미세한 포착을 담아내고 때로는 카메라를 흔들기도 한다. 그리고 그 진동과 파동을 통해 우주

만물을 담아낸다.

전남 담양에서 자라 대나무를 보고 자란 작가 라규채. 대학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공무원으로 살면서 꾸준한 예술 공부를 통해 자신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작가는 반야심경 등 불교 공부를 통해 작품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대나무는 중심이 비워져 있잖아요. 물질은 태양광선을 통해 존재를 증명하고 또 변해 갑니다. 그 형상을 넘어 유와 무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제 작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평생 대나무를 찍어왔다는 작가는 앞으로 수목화 기법의 작업에 도전하고자 한다. "여백의 미를 강조하는 수목화의 느낌을 흑백필름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한지에 작품을 출력해 2년 후쯤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라규채 작가는 1959년 전남 담양 출생으로 광주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원 사진학과를 졸업했다. '쭈, 비움에 젖다', 'Bamboo, 썰에 美靚다' 등 다수의 전시를 가진 바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자가수 웅산 7집 앨범 'I Love You'

팬들에게 전하는 러브레터 형식으로 꾸며져

불자가수 웅산이 2년 만에 7집 'I Love You'로 돌아왔다. 한국 최고의 재즈 디바로 불리는 웅산은 6집 'Tomorrow' 이후 2년 만에 새로운 정규 앨범을 발매했다.

7집 'I Love You'는 웅산 특유의 카리스마와 감수성이 묻어나는 음악으로 채워졌다. 본인의 자작곡 'I Love You'를 타이틀로 팬들에게 전하는 러브레터 형식으로 앨범을 꾸며 눈길을 끈다.

기존 앨범에서 서서히 드러내보인 송라이터의 면모는 이번 앨범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타이틀곡 'I Love You'를 비롯해 블루스 'Mr. Blues', 보사노바 'Asi Que', 탱고 'Mi Tango Triste' 등을 직접 썼다.

도전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즐겨 부른 록과 블루스 장르뿐 아니라 탱고와 보사노바 같은 라틴뮤직, 재즈화가 쉽지 않던 오페라 명곡까지 소화해냈다.

정혜숙 기자



웅산 7집 'I Love You'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재즈 보컬리스트로서도 다양한 음악에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통도사성보박물관 '부석사 괘불' 전시

다불회 재현한 1745년작...2014년 4월 6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이 제29회 괘불명 특별전에 부석사 괘불(보물 제1562호)을 박물관 내에서 전시한다. 2014년 4월 6일까지 전시되는 이 괘불은 1745년 부석사에서 조성했으며 조선 후기 의식인 회주(會主)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다불회를 재현한 불화다. 괘불은 높이 810.0cm, 넓이 523.5cm의 비단바탕에 그려졌다.

이 괘불은 60여년 전 부석사에서 그려진 1684년 괘불을 범본으로 삼았는데 두 폭의

괘불은 화면의 절반 이상을 석가모니를 주불로 하는 영산회상도를 그리고, 상단에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약사불과 아미타불의 삼세불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두 괘불의 큰 차이는 1745년 조성한 괘불에는 석가모니불의 대좌 앞에 노사나불 입상을 배치한 점이다. 1684년 제작한 부석사 괘불도에는 상단에 가로축으로 삼세불을 배치하고 화면 중앙세로축으로는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불만 배치하였다면,



부석사 괘불, 1745년작

명히 하고 있다. 화기에 따르면 1745년 부석사 괘불은 서

기를 수습승으로 화승 조현, 추안, 추안, 상운, 우유, 자인, 순의, 환선, 채봉, 행봉, 자추, 삭신이 제작에 참여했다. 이들 중 서기와 자인은 괘불을 제작하면서 동시에 1684년작품 부석사 괘불을 수리하였다. 이로써 옛 괘불의 보수를 진행하면서 괘불을 새로 그리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화사가 새로운 괘불의 조성함으로써 괘불의 도상과 내용에서는 과거의 전통을 다소 답습하였으며, 전통적인 도상을 유지하면서도 화사 각각의 개별적인 존재를 개성있게 그린 것으로 보아 화승들의 독자성 또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정혜숙 기자

日江 스님께서 정리하신 알기쉬운 상용의식과 신간저서 안내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아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법이 법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편집인 日江 합창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스님들에게 최고 인기 판매 중!



예경·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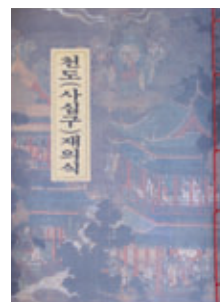
46배판 | 118쪽 | 값 15,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 점안 의식은 이 책 한편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9,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방시식, 지장 불공, 관음시식 등 재 의식을 조목조목 쉽고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의식 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의식집 (2010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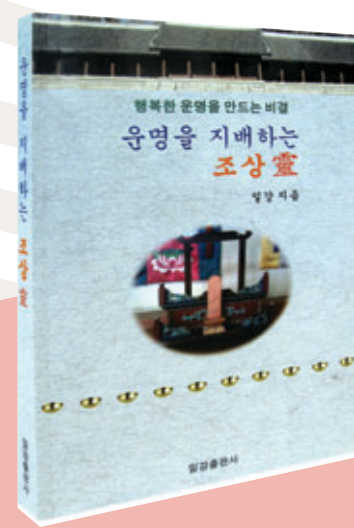
누구나 간편히 기다리면 의식 집, 송가 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일체 후 최우선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망망하지 않고 자신 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 구입문의 : 일강 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사단법인 천우중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靈

신간 고사와 치성



- 종교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신도들에게 권해주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값:12,000원 | 사찰 다량주문 환영

구입문의 : 일강출판사 02)2233-5286, 2237-8543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사단법인 천우중



고사와 치성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의식 순서대로 되어 있으며 삼차림, 준비물, 방법까지도 알기 쉽게 쓰여있어 초보자들도 한번 읽어보면 바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자신감도 생기고 사암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46배판 1144쪽 | 값 13,000원